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nia.com/mem/hnmaum

## 법공양 페이지

# 가정 안식처로 이끄는게 그대로 정진

여러분께서 하늘과 땅이 돌이 아닌 도리를 공부하시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 우리들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활을 빼놓고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종교라는 것도 없고, 법당이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형상도 없을 것

제 청소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님네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도량이 돌이 아니라고 봅니다. 돌이 아니기에 아픔도 돌이 아니요, 가정이 파탄되는 것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이 법당이요, 변소에 가면 변소가 법당이다'라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당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없다면 모든게 무효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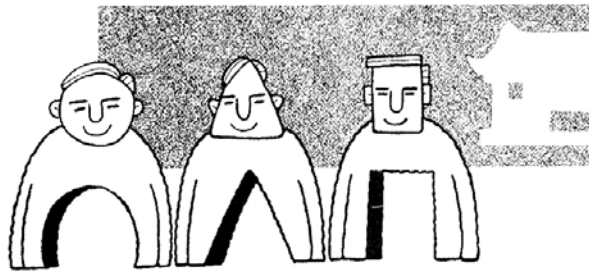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화목하고 즐거우며 어려움 없이 한 가정 유지되어 나가는 길이 여러분 마음 행동 말에 달려있어요”

입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부처도 없습니다. 부처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돌이 아닌 까닭에 생활 자체가 그대로 법입니다.

그대로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애고나 업보가 닳아지고 피치못할 일들이 닳쳐오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해서, 마음이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 마음, 마음이라니까,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게 마음인 줄 알지 마시고 꼭바로 진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나기려면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고가 다가오는 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마음을 나쁘게 먹고 말을 아무렇게나 한다면 입력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셔서 조심해야 하며 입력이 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빠르게 나오고 더디 나오고 할 뿐이지 흘러버림 없이 그대로 입력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잘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정진한답시고 철야정진하고 기도간다고 하면서 가정생활을 험악하게 되니, 밥을 못 먹어서 채 고픈게 아니라 외로움에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서 간식을 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나가서 간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은 나가서 방황하다 보면 문

제가 청소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님네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도량이 돌이 아니라고 봅니다. 돌이 아니기에 아픔도 돌이 아니요, 가정이 파탄되는 것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이 법당이요, 변소에 가면 변소가 법당이다'라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당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없다면 모든게 무효입

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산란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거기가 되돌려 놓고 지켜 보는 사람으로서 죽하라는 겁니다. 절에 와서도 불일이 끝났으면 빨리 다녀가도 되는 것을 그냥 밤에도 정진한답시고 집에 돌아가지 않으니, 그 가정이 뭐가 됩니까? 자식과 남편을 배고프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전부터 내가 철야정진을 시키지 않는 까닭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자기 가는 곳마다 부처가 계시는데 어찌 밤에 여기서 정진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자기를 돌보고 이 자리에 앉았는지 않는다고 해서 안 돌보겠습니까? 처처마다 부처고, 처처마다 도량이고, 처처마다 자기가 그대로 법입니다.

불교라는 것이 절에 나와서 기도나 하고 정성이나 들고 이리저리 종교가 아닙니다. 우주전체에 인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종교이고, 불교입니다.

한 발짝 떼어놓고 가는 것도 정진이고, 오는 것도 정진이고, 앉았는 것도 정진이고, 누운 것도 정진이고, 서는 것도 정진이고 일하는 것도 정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들 고정되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길을 가다 넘어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라는 말을 했지요. 그랬는데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도 이만저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면서 가정을 행복하고 웃음넘치

는 식구들의 안식처로 이끌어가는 그런 태도가 그대로 정진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지요. 자기 하나로 인해서 일체 만법이 벌어지고 일체 만법이 작용되고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겁니다. 빛보다 더 빠르다고, 심력은 그렇게 빠르고 힘이 있다고 항상 말을 했지요.

진실 한 마음으로 모두 하나나, 어떠한 일에 화가 나고 어떠한 잘못이 있고 하늘이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맡겨놓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한군데에서 나오 드니까 나는 그런 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오는 대로 심부름만 열심히 잘 하면 된다'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 되시겠습니까.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십

시오, 잊고계세요 얘기했지만 만물만생이 여러분의 차원으로 능력대로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불개지도 다 놓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공까지도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이 그냥 한 찰나에 돌아옵니다. 지금 금방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구를 붙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자나 깨나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면 이것도 실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네 것 네 것 하면서 마음으로 붙잡고 이것을 해야 움을까, 안 해야 움을까 하는 분별심을 가지고 붙들고 돌아가니까, 그게 업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다가오는 대로 업을 지으니, 그

윤회성을 오히려 입력시키는 겁니다. 애착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니까요.

에너지가 허공만한 큰 것이 있다 하면 그 에너지 덩어리를 여러분이 악으로 생각하면 악으로 쓰여지고, 선으로 생각하면 선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악이고 선이고 한 군데서 나옵니다. 한 에너지 덩어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악이다, 선이다. 양면으로 두 마디를 하지만, 천차만별의 악과 선은 가지가지로 다릅니다. 마음으로 악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선을 짓기도 하고, 행동으로 선을 짓는가 하면 행동으로 악을 짓고 말로 악을 짓는가 하면 말로 선을 짓는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많습니다. '고'가 고가 아니라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그러니 고가 아니라 바로 나를 이끌어주는 재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것 하나도 '고'가 될 게 없습니다.

'고' 하나만 떨어진다, '집착'도 떨어지고 '별'도 떨어지고 '도'도 떨어진다

이 짧고 이 몸 옷 갈아입는 것은 수명이 좀 길다 뿐이죠. 또 옷이 맞지 않으면 얼른 벗어 버리고 또 것 입습니다. 그와 같이 아이 적에 죽는 수가 있고 젊어서 죽는 수가 있고 늙어서 죽는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져갈 수 있을 지언정 나는 가져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나'는 영원하느니라 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데서 잘못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 한 식구가 모여서 사는 것도 인연에 따라서 만나서 한 절 살다가 인연이 다하면 다시금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내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라는 조건이 자체도 바로 한 신같이 버려야만 됩니다. 다만 부처님 뜻에 그렇게 육신을 낳아준 부모의 뜻도 그렇고, 또는 자식들을 낳아서 제대로 기르지 못하면 안 되었고, 많은 바 소임을 다해야졌기에 육신도 잘 섬겨야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질계와 정신계가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애들을 공부시킨다 하더라도 정신쇠약이 되면 공부할 생각이 안 나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몸이 나른하고 졸립기만 하게 되니까, 그 점을 부모네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괴로회복제라도 먹여서 정신회복이 되게끔 돌봐 주어야만 모자라지가 않겠지요. 그래야 용기가 나고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아파보셨어요. 의욕이 생기는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저녁·점심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악을 먹이는 것 먹는 게 아닙니까. 제철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었지요. 여하한 여러분이 자식들을 기르고 부모를 잘 섬기려면 반의사는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진실하게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돌려놓을 때 아플 때는 화해서 찰나에 약사가 됩니다. 내 주인공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거기가 말걸 때는 관세음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칠성이 되고, 독성이 되고, 용신이 되고, 지신도 되고, 모든게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행을 원하는 중년·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의 불교 167

## 곤장 맡기 싫은 하인이 지켜야할 순종의 도리

“목 마르면 물 마시듯이,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듯이 그렇게, 일체를 주인공이 길잡이 하고 있다고 믿어 일체를 주인공에 맡겨라. 죽든 살든 어차피 낙엽 떨어지듯 떨어질 것인데 조막순처럼 움크려 쥐고 어떻게 될까 보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마저도 주인공에 맡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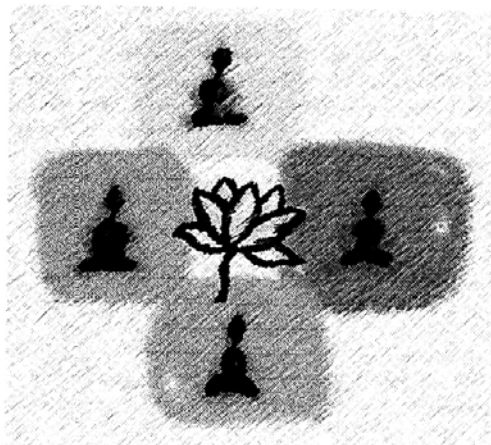
사람들은 놓으라고 하니 놓고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 그러나 놓았기 때문에 참으로 살 수 있는 법이다. 중생의 마음 씁쓸이는 일일이 생각을 지어서 일을 해야만 이치에 맞는 줄로 여기지만 도인의 마음 씁쓸은 일일이 이치를 따지지 않고 꼭 쥐어 있으면서도 조금도 빈틈 없이 법에 맞게 된다. 놓았기 때문에 생각을 지어서 하는 어떤 행보다도 더 원만하고 자연스럽고 깊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이익된 행을 하게 된다.”

하인의 삶은 주인의 의지에 좌우된다. 자기 나름의 생각과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앞세우기 전에 일체를 주인에게 맡기고 산다.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하라하면 하고 하지말라 하면 그친다. 스스로 시도하지 않는다. 시키는 대로 다만 열심히 할 뿐이다. 때로는 하기 싫다 또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먼저 주인에게 묻는다. 제 멋대로란 없다. 철저히 자기를 죽이면서 오로지 순종으로 일관한다.

하인의 입장에서 순종이 곧 미덕이다. 순종하면 할수록 주인의 빚은 커진다. 제 마음도 편해지고 삶도 넉넉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주인의 의지를 거스르면 그의 삶은 고달퍼진다. 질책과 벌을 자초하게 되고 심하면 쫓겨나게 된다. 그 결이 하는 하인이라면 절대로 주인을 거스르지 않고 주인에 맞서지 않는다. 다만 순종할 뿐 조건을 따지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는다. 그는 무조건이다. 스스로 수족관이 처진다. 그는 주인이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활동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는 매우 현명하다.

하인은 스스로 고민하고 괴로워 하지 않는다. 주인이 어렵게 알아서 하리라는 점을 믿기 때문이다. 그는 회의하지도 않는다. 그에겐 후회도 없다. 흥하던 망하던 주인을 믿고 따르기만 하지 나서질 않는



다. 나서보았자 주인만 못한 줄을 진작에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할 몫은 주인에 대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꼭 부리지 않고 열심히 따르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믿는다. 그의 믿음은 철석같다. 철석같이 그의 순종엔 티가 없다. 자기를 앞세우는 자만심 따위가 없다.

그 점에서 그는 아주 자연스럽고 자동적이다. 일마다 매번 믿는다, 따른다 하는 다짐을 안해도 그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이다. 그는 주인의 분신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금도 불편한 줄을 모른다. 주인에게 다 맡겼기에, 생사까지도 놓았기에 '나'는 사라지고 주인의 손발로 주인의 일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도를 깨우친 사람을 빼놓고는 누구나다 '나로소이다' 하며 산다.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산다. 뭔가 이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잔뜩 긴장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안간힘을 쏟아 붓는다. 그러나 잘해보겠다는 의지와 정열에도 불구하고 삶은 항상 고풍하다. 되는 듯 실패가도 안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만족할만 하다 싶지만 늘 그

렇게 되질 않는다. '내 인생 나로소이다' 하는데도 삶은 내 생각 내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괴롭다. 때로는 불만거리가 많고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기도 하다. 왜 때때로 안되는가?

나로소이다 하지만 그 '나'는 진짜 나 아니다. 그 '나'는 하인일 뿐이다. 가짜 주인일 뿐이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이 육신의 나는 하인이고 이 의지의 나는 진짜가 아닌 가짜이다. 진짜는 나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숨쉬게하고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주인공 그것이다.

말하자면 나로소이다의 그 나는 그 나에 가려져 있는 진짜와는 하인 대주인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인이 주인을 늘 무시하고 제가 주인 행세를 하려드니까 뭔가 장애가 많고 괴로움이 따른다. 순종하지 않는 하인이 편할 리 없는 것이다. 주인을 무시하는 청지기, 마당쇠를 기다리는 것은 곤장 밖에 더 있었는가. 순종이 최선의 주의요 최선의 노력임을 알아. 믿자. 믿고 놓고 맡기자.

협찬: 법혜·구혜리·원지선